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A Longitudinal Study of Negative Life Event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among Late Elementary School Children

심 희 옥*
Sim, Hee-og

ABSTRACT

Negative life events, self-estee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were studied longitudinally among late elementary children.

Subjects were 241 boys and girls for depression and 258 for antisocial behavior. The instruments were the Adolescent Perceived Events Scale,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the 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and the Antisocial Behavior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ay variables were reciprocally related to one another in patterns over a period of one year differed by internal and external adjustment. For depression, depression at Time 1 had effects o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t Time 2. For antisocial behavior, negative life events at Time 1 influenced negative life event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at Time 2.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effects of negative life events,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maladjustment.

Ⅰ. 서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스트레스와 그들의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신은영과 김경연, 1996; 신효식과 이경주, 1997; 심희옥, 1995; 1997; 한미현과 유안진, 1996; Dubow & Tisak, 198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과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병 또는 비행행동에서 직선적인 관계에만 관심을 쏟아왔다. 성격, 인간발달, 스트레스와 대처 과정에 관한 모델들은 인간과 환경이 서로에게 미치는 호환(reciprocity)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아동

* 군산대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에게 우울한 기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아동의 우울감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 아동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대인간의 생활사건을 더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부터의 증후의 경로관계와 역으로 증후로부터의 스트레스의 경로관계를 다룬 종단연구들은 순환모델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과 환경간의 호환적 관계는 시간에 걸쳐서 전개되고 바뀐다고 보는 전 생애(life span) 발달이론가들에 의해 가정되어 왔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을 연구할 때 변인들의 관계를 정지된(static)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발달에 대한 거래 모형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스트레스 연구에서 지금까지 많이 연구해 온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증후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증후로부터의 생활사건의 경로는 더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Compas, 1987).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진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연구로 생활사건이나 기타 변인들이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만 고려하였다. 횡단연구의 주요 단점이 변인들간의 시간적인 순서가 알려지지 않아 시간적으로 이전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단일 시점에서 모든 변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횡단적 자료로는 호환적 인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인과성의 방향을 추론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인간발달에 관한 거래모형이 제안하듯이 부적응 자체가 또한 부정적 생활경험과 관련이 있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Compas, Wagner, Slavin, & Vannatta, 1986). 생활사건이 부적응의 산물일 수 있고 부적응이 또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스트레스 대처 자원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 시점에서의 생활사건이나 우울성향은 이전의 생활사건이나 우울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자원으로 자아 존중감, 내 · 외적 통제감, 심리사회적 발달과 같은 개인적인 자원이나 부모나 친구, 선생님으로부터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상정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연구해오고 있다(강성희, 1991; 심희옥, 1997; 한미현과 유안진, 1996; Compas, Slavin, Wagner, & Vannatta, 1986;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Sim, 1994). 정확히 아동후기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종단적으로 스트레스와 개인 · 사회적인 자원과 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힘들고 특히 이런 관점에서 반사회적 행동 같은 부적응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그러나 몇 가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들은 주요 생활사건이 심리적인 증후와 직선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먼저 Swearingen과 Cohen(1985)은 13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5개월 간격의 종단연구에서 주요 생활사건과 증후간의 관계가 이전의 증후를 통제한 가운데 유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Time 1의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심리적인 고통을 예언하기보다는 Time 2의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이전의 심리적인 고통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Burt, Cohen과 Bjorck(1986)는 5개월 간격의 청소년 대상의 종단연구에서 Time 1의 주요 생활사건과 Time 2의 심리적 고통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고한다. Burt와 그의 동료들(1986), Compas와 그의 동료들(1986), 그리고 Swearingen과 Cohen(1985)은 모두 증후수준과 후속 된 부정적 생활사건간에 유의한 관련을

보고한다. 즉 생활사건이 후속 된 증후를 예언하는 것보다는 증후가 후속 된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을 더 잘 예언했음을 보고하였다. Wagner, Compas와 Howell(1988)은 3 wave의 주요 생활사건, 일상적 생활사건과 심리적인 증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이전의 증후를 통제한 뒤 일상적 스트레스원(학교 숙제, 부모와의 논쟁 등)이 주요 생활사건과 증후를 매개함을 보고하였다. 즉 주요 생활사건이 일상적 생활사건을 예언하고 일상적 생활사건이 증후를 예언하였다. 그러나 주요 생활사건과 증후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의 개인적 대처 자원으로 통제감(locus of control)을 상정한 Husaini와 Von Frank(1985)는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사건, 대처자원 및 우울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Time 1에서 우울해 한 사람이 Time 2에 가까운 친척과 친구로부터 지원을 더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ime 2에 통제감을 더 적게 느꼈다고 한다.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적응여부에 관해 연구한 Compas와 그의 동료들(1986)은 스트레스의 거래적 모형을 지지하는데, 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증후간의 관계를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갈 때 한 Wave 3의 패널 연구를 보면, 변인들끼리 서로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호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Time 1의 부정적 생활사건과 사회적 지원의 만족은 Time 1의 부적응을 통제한 가운데 Time 2의 부적응을 유의미하게 예견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만족은 Time 2의 부정적 생활경험을 Time 1의 증후와 부정적인 생활경험을 통제한 후 예견했다고 보고한다. DuBois와 그의 동료들(1992)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평균나이=13.5세) 한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우울성향간의 관계에 대한 2년간의 종단연구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2년 후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심리적인 상태가 후속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몇 가지의 종단연구를 통해 부정적 생활사건, 개인 및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간의 호환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부정적 생활경험이 아동후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내·외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것과 이러한 부적응과 그 원인들이 호환적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호환적 관계를 고려하여 아직 청소년기에 비해 연구가 미흡한 아동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초래하는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즉 동일한 변인을 두 시점에서 측정하여 1년 전의 적응수준과 사회심리적 특징을 통제한 뒤 1년 후의 적응수준을 알아보는 종단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Time 1과 Time 2의 부정적 생활사건과 우울성향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또한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는 어떠한가?
2. Time 1의 변인들과 Time 2의 변인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지원은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Time 1과 Time 2 각각의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서 성차가 있는가?
4.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편의표집에 의해 이들이 4, 5학년 때와 1년 후 5, 6학년 때 행해졌다. 1년이라는 시간 경과로 연구대상자가 우울성향의 경우 328명 중 87명(26.5%)이,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341명 중 83명(24%)이 탈락하여 우울성향의 경우 241명, 반사회적 행동에서 258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변인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령의 범위는 Time 1에서 9-12세 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5.5%, 대학교 졸업이상이 45.5%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을 응답한 사람 중 판매, 숙련, 사무직 종사자가 80%이고, 관리 및 전문직이 18.1%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4%이고 대학교 졸업이 29.1%이었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을 응답한 사람 중 판매, 숙련, 사무직 종사자가 76.3%이고, 관리 및 전문직이 9.1%이었다.

〈표 1〉 우울성향 · 반사회적 행동의 연구대상자 성별 분포

( ):%

변인 \ 성별	남	여	계
우울성향	117(48.55)	124(51.45)	241(100)
반사회적 행동	129(50.00)	129(50.00)	258(100)

2. 측정도구

1) 부정적 생활 사건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측정 도구는 3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Compas, Davis, Forsythe, 그리고 Wagner가 만든 청소년이 지각한 사건척도(Adolescent Perceived Event Scale, 1987)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고 작은 생활사건이나 변화가 응답자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좋은지, 보통인지, 나쁜지), 즉 사건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묻는다. 응답자는 먼저 생활사건 하나 하나가 현재 혹은 이번 한해 동안에 일어났는지를 표시하고, 일어났으면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평가한다. 부정적 생활사건, 즉 스트레스는 아동이 일어났다고 답한 사건에 "나쁘다"고 표시한 항목의 합계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72-79를 나타내었다.

2)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측정은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했는데 아동은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자아 존중감 정도를 "정말 그렇다"에서 "정말 그렇지 않다"의 1-4점 척도에 반응한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을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68-.74이었다.

3) 사회적 지원

Harter의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척도(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Harter, 1986)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번안하여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6개 문항씩 4가지의 하위 항목, 부모, 반친구, 친구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을 측정한다. 예비연구에서 "반친구"나 "친구"라는 개념에 큰 차

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반친구 문항을 뺀 총 18개의 문항이 사용되었고, 응답형식도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되었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아버지나 어머니)이 계신다"이다. 응답자는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자기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에 표시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89-.92이었다.

4) 우울성향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가 사용되었다. Noh, Avison과 Kasper(1992)가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다의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을 첨가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를 중심으로 '역학연구-우울척도: 청소년용'에 부가된 2개 문항을 더하여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 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최근 2주 동안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전혀/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거의 항상 이었다"로 표시한다. 한 문항의 예는 "울음을 터트렸다"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84와 .86을 나타내었다.

5)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곽금주와 문은영(1993)이 만든 초등학교용 반사회적 행동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이번 한해 동안에 얼마나 자주 문항의 행동을 했는지 "없다"에서 "많다"까지 1-5점 척도로 표시한다. 한 문항의 예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이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는 .91과 .87이었다.

3. 자료 분석

PC-SAS를 이용하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했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먼저 Time 1의 우울성향을 종속변수로, 그 다음은 Time 2의 부정적 생활사건을 종속 변수로, 마지막은 Time 2의 우울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절차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하여 먼저 Time 2의 부정적 생활사건을 종속변수로, 그 다음은 Time 2의 자아 존중감을 종속변수로, 그 다음은 Time 2의 사회적 지원을 종속변수로, 마지막은 Time 2의 우울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절차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인들간의 성별, 시간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각각에 대한 Time 1과 Time 2 안에서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Time 1과 Time 2간의 변인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Time 1과 Time 2의 변인들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Time 1					Time 2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우울성향										
Time 1										
1. 학년	-									
2. 성별[a]	.03	-								
3. 부정적생활사건	-.11+	.17**	-							
4. 자아존중감	-.08	.03	-.21**	-						
5. 사회적지원	-.17**	-.13*	-.06	.49****	-					
6. 우울성향	.09	-.06	.25****	-.46****	-.47****	-				
Time 2										
7. 부정적생활사건	-.16*	.18**	.37****	-.01	-.03	.17*	-			
8. 자아존중감	-.15*	.11+	-.21**	.39****	.26****	-.37****	-.18**	-		
9. 사회적지원	-.23***	-.05	-.10	.28****	.50****	-.38****	-.17**	.39****	-	
10. 우울성향	.11+	-.17**	.20**	-.19**	-.12+	.37****	.20**	-.45****	-.29****	-
반사회적 행동										
Time 1										
1. 학년	-									
2. 성별[a]	.06	-								
3. 부정적생활사건	-.08	.20**	-							
4. 자아존중감	-.05	.05	-.20**	-						
5. 사회적지원	-.13*	-.10	-.13*	.56****	-					
6. 반사회적행동	-.04	.31****	.26****	-.25****	-.24****	-				
Time 2										
7. 부정적생활사건	-.14*	.17**	.39****	-.01	-.06	.09	-			
8. 자아존중감	-.14*	.05	-.21***	.38***	.29****	-.19**	-.19**	-		
9. 사회적지원	-.18**	-.08	-.19**	.32****	.50****	-.15*	-.20***	.44****	-	
10. 반사회적행동	.02	.32****	.26***	-.12*	-.16**	.56****	.25****	-.24****	-.17**	-

+p< .10 *p< .05 **p< .01 ***p< .001 ****p< .0001
a성별 여자=0, 남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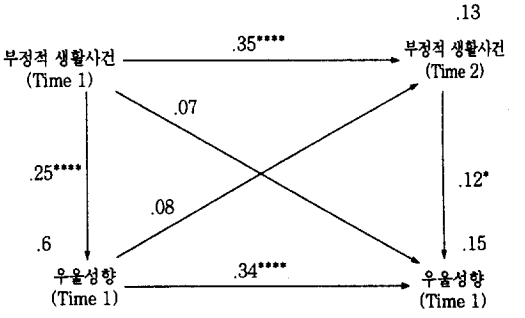
〈표 2〉에 의하면, 우울성향의 경우 Time 1에서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으로 인해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더 우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41)=.25],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우울을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41)=-.46; r(241)=-.47], 이는 Time 2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울성향은 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안정적 [r(241)=.37] 임을 알 수 있었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도 우울성향처럼 부정적 생활사건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적응 행동을 더 보이고 [r(258)=.26], 자아 존중감과 사

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58)=-.25; r(258)=-.24]. 이는 Time 2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도 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258)=.56].

1) 연구문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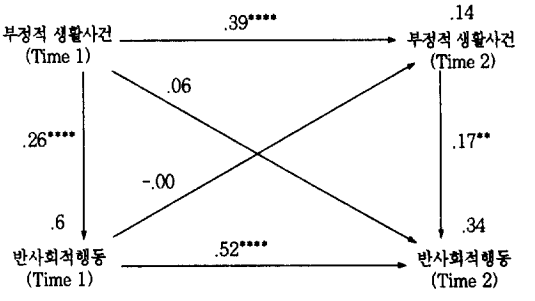
Time 1과 Time 2의 부정적 생활사건과 부적응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그림 1과 2〉와 같다. 먼저 〈그림 1〉의 우울성향의 경우, Time 1과 Time 2의 부정적 생활사건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Beta=.35, p<.0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ime 1의 우울성향이 Time 2의 우울성향에 강한 영향(Beta=.34, p<.0001)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 생활경험이나 우울경험을 통제한 가운데 부정적 생활경험과 우울경험에 일관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Time 1의 부정적 생활경험과 Time 2의 우울성향이 무의미한 낮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이 시간에 걸쳐서 우울성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ime 2의 부정적 생활경험과 Time 2의 우울성향은 유의미한 관련(Beta=.12, p<.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그림 2〉를 보면, Time 1과 Time 2의 부정적 생활사건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Beta=.39, p<.0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ime 1의 반사회적 행동은 Time 2의 반사회적 행동에 강한 영향(Beta=.52, p<.0001)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아동의 부정적 생활경험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한 가운데 부정적 생활경험과 반사회적 행동에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ime 1의 부정적 생활경험과 Time 2의 반사회적 행동이 무의미한 낮은 관련을 보이나 Time 2의 부정적 생활경험은 Time 2의 반사회적 행동과 높은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있다. 이는 Time 2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 아동이 주로 Time 2에서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 Time 1과 Time 2의 부정적 생활사건과 우울성향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p< .05 ****p< .0001



〈그림 2〉 Time 1과 Time 2의 부정적 생활사건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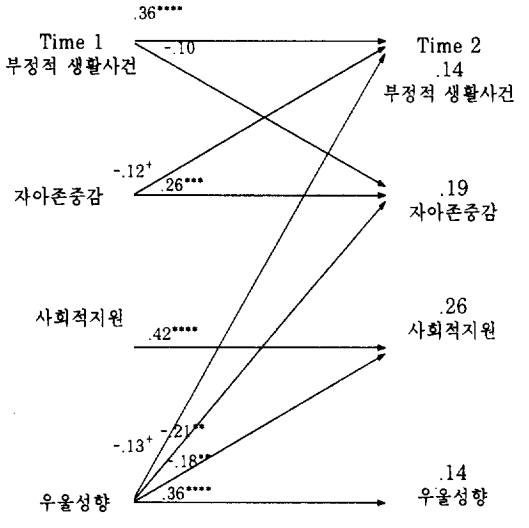
**p< .01 ****p< .0001

2) 연구문제 2

Time 1의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우울성향은 Time 2의 동일한 변인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이런 관계가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과 〈그림 4〉처럼 경로분석이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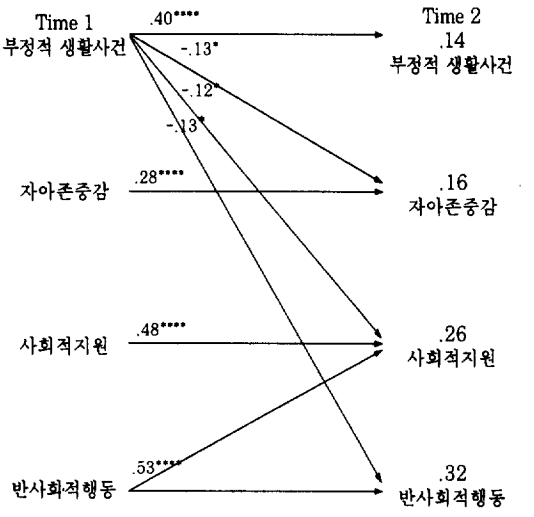
졌다. 먼저 〈그림 3〉의 우울성향을 보면, Time 1의 우울성향은 Time 2의 부정적 생활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성(Beta=-.13, p〈.10)을 보이고 또한 Time 2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우울성향에 유의미한 영향(Beta=-.21, p〈.01; Beta=-.18, p〈.01; Beta=.36, P〈.0001)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면, 우울성향과는 대조적으로 Time 1의 부정적 생활경험이 Time 2의 변인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 1의 부정적 생활경험은 Time 2의 부정적 생활사건경험과 유의미한 관련(Beta=.40, p〈.0001)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Time 1의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Time 2의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낮고 사회적 지원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3, p〈.05; Beta=-.12, p〈.05). 또한 Time 1에서 부정적 생활경험을 많이 한 아동일수록 Time 2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Beta=.13, p〈.05) 나타났다.



〈그림 3〉 Time 1과 Time 2의 변인들과 우울성향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분석결과

+p〈.10 **p〈.01 ***p〈.001 ****p〈.0001



〈그림 4〉 Time 1과 Time 2의 변인들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분석결과

*p〈.05 ****p〈.0001

3) 연구문제 3

Time 1과 Time 2 각각의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Time 2에서만 남녀간의 우울경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1)=2.74, p〈.01]. 즉 Time 2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에서는 Time 1과 Time 2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문제 4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 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4〉와 같다. 우울성향에서는 Time 1과 Time 2간에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는 Time 2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8)=-3.61, p〈.001].

〈표 3〉 Time 1과 Time 2 각각에서의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성별 t-검증 결과

변 인	시간	성별	M	SD	t
우울성향					
	Time 1	남	46.09	9.71	0.96
		여	47.37	1.03	
	Time 2	남	44.74	8.88	2.74**
		여	48.12	10.14	
반사회적 행동					
	Time 1	남	59.85	12.08	-5.14****
		여	53.33	7.90	
	Time 2	남	62.57	13.27	-5.39****
		여	55.29	7.67	

**p< .01 ****p< .0001

〈표 4〉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에 대한 paired t-검증 결과

변 인	M의 차	SD	paired t
우울성향	.27	11.27	.37
반사회적 행동	-2.34	10.44	-3.61***

***p< .001

Ⅳ.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1년간의 종단연구로서 아동의 다양한 부정적 생활사건이 초래하는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이 내적·외적 부적응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 경로분석을 통해서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보았다. 이런 종단연구는 횡단연구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러나 변인들간의 있을 수 있는 호환적인 관계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간발달에서의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거래모형을 생각해 볼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시간에 걸쳐서 부정적 생활경험과 우울성향,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관한 각각의 결과를 보면, 우울성향의 경우 부정적 생활경험이나 우울성향을 통제한 가운데 아동의 부정적 생활경험과 우울경험에 상당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즉 크고 작은 부정적 생활경험을 많이 경험했거나 우울해 한 아동이 1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Time 2의 우울성향을 보이는 정도는 Time 2의 부정적인 생활경험 정도와 Time 1에서 얼마나 우울해했느냐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이 시간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우울성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울성향이 높았을수록 그리고 Time 2 시기에, 즉 같은 시기에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은 우울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도 역시 부정적 생활사건을 통제한 가운데 반사회적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년 전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한 아동이 여전히 1년 후에도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의 경우에도 역시 Time 2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초래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Time 2의 크고 작은 부정적인 생활경험정도와

Time 1에서 얼마나 반사회적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성향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이 시간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서, 과거에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Time 2시기에, 즉 같은 시기에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은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생활경험,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결과를 보면, 우울성향의 경우, Time 1에서 부정적 생활경험을 많이 할수록 Time 2에 부정적 생활경험을 많이 하고 Time 2에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Time 1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Time 2에서 부적인 생활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들이 1년 후에 자신의 생활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ime 1의 우울성향은 Time 2에 부정적 생활경험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을 낮게 하고, Time 1에서 우울해 한 아동은 Time 2에서도 여전히 우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ime 1에서 우울해 한 아동일수록 Time 2에서 크고 작은 부정적인 생활을 더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를 낮게 하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아동이 Time 1에서 부정적 생활 경험을 많이 할수록 Time 2에서도 부정적 생활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Time 2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을 낮게 가지며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인 부적응과는 달리 Time 1의 반사회적 행동은 Time 2의 부적인 생활경험,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지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ime 1에서 부정적 생활경험을 한 아동일수록 Time 2에서 부정적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고 지각하며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부정적 생활경험이 아동의 내적 · 외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즉 외적인 부적응이 아니라 내적인 부적응 자체가 시간이 경과되어 한 해 후에 아동의 환경과 아동 자신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한 해 전의 크고 작은 부정적 생활사건이 다시 아동의 부정적인 생활 경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은 인간과 환경이 서로에게 미치는 호환적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심리적인 적응여부가 계속해서 아동의 생활사건경험, 심리사회적인 발달, 그리고 나중의 심리적인 적응에 관여하게 되고, 아동이 경험한 좋지 않은 생활사건들이 계속해서 아동이 경험할 생활사건, 심리사회적인 발달 그리고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울성향의 남녀차이가 4, 5 학년 때에는 없었다가 5, 6학년 때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우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olen-Hoeksema(1994)가 시사하듯이,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서 우울성향에서의 성차는 일정하지 않으나, 사춘기를 전후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에 대해 더 반추적(ruminative)이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여학생들이 더 우울해 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은 신체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 속에서 남학생들보다 더 도전을 받

게 될 수도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시간에 걸쳐서 남학생이 반사회적 행동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전보다 1년 후에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고하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이라는 시간 차이 속에서 부정적 생활사건을 통제하거나 부정적 생활사건, 개인, 사회적인 자원을 통제한 가운데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할 것 같다. 1년 전에 우울해한 아동이 여전히 우울해 한다. 특히 반사회적 행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Time 1의 개인 · 사회적인 자원과 부적응을 통제한 가운데 Time 1의 부정적 생활사건이 아동의 내적 · 외적인 적응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우울성향의 경우에는 Time 1의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Time 2의 부적인 생활사건,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우울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내적인 부적응이 아동의 환경과 개인의 평가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에 주목해야겠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는 Time 1의 부정적 생활경험이 Time 2의 부정적 생활 경험,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크고 작은 생활 사건들의 지속적인 영향에도 주목해야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문제이다. 연구대상자가 편의표집에 의해 한 학교에서 선택되었고 중류계층이여서 다른 학교나 다른 사회경제계층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는 거의 모든 종단연구의 제한점이듯이 연구기간동안의 연구대상자의 탈락 문제이다. 본 연구의 1년 기간에 걸쳐서 탈락율이 우울성향의 경우에는 26.5%이고 반사회적 행동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아동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이므로 Time 1에서 부적응을 보인 아동일수록 1년 후에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는 본 연구가 부정적 생활사건과 개인, 사회적인 자원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상정되지 않은 부모의 스트레스 정도나 부모 자신의 증후와 같은 다른 요인(Compas, Howell, Phares, Williams, Giunta, 1989)들이 아동의 부적응에 관여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그리고 부정적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적응에 대해 횡단연구로는 탐색할 수 없는 순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의 적응 문제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Wagner와 그의 동료들(1988)이 제안하듯이 주요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주요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을 구분한 좀더 정교한 종단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부모, 친구, 또는 선생님 등의 사회적 지원의 출처를 분류하여 부정적 생활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개인 및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연구도 요청된다. 종단연구의 시간 간격을 좀더 좁히거나 시점을 더 늘린 추후의 연구 또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보다 상세히 규명하게 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성희 (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신은영, 김경연 (1996). 아동·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있어서 관여, 내적통제감의 스트레스 완화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4(6), 195-205.

신효식, 이경주 (1997). 십대자녀가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5(5), 131-140.

심희옥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및 부적응. 아동학회지, 16(1), 89-98.

심희옥 (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Burt, C. E., Cohen, L. H., & Bjorck, J. P. (1986). Effects of life events experienced by you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Compas, B. E. (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Compas, B. E., Davis, G. E., Forsythe, C. J. & Wagner, B. M. (1987). Assessment of major and daily life events during adolescence: The adolescent perceived event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534-541.

Compas, B. E., Howell, D. C., Phares, V., Williams, R. A., Giunta, C. T. (1989). Risk factors fo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young adolescents: A pro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6)*, 732-740.

Compas, B. E., Slavin, L. A., Wagner, B. M., & Vannatta, K. (1986).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with psychological dysfun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3)*, 205-221.

Compas, B. E., Wagner, B. M., Slavin, L. A., & Vannatta, K. (1986). A prospective study of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during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3)*, 241-257.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3)*, 542-557.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6)*, 1412-1423.

Harter, S. (1986). Manual: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Husaini, B. A., & Von Frank, A. (1985). Life

events, coping resources,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study of direct, buffering, and reciprocal effects.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5*, 11-136.

Nolen-Hoeksema, S. (1994). An interactive model for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19-534.

Nor, S., Avison, W., Kasper, V. (1992).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 84-91.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Sim, H. (1994). Coping resources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Corvallis, OR.

Swearingen, E. M., & Cohen, L. H. (1985).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45-1054.

Wagner, B. M., Compas, B. E., & Howell, D. C. (1988). Daily and major life events: A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of psychosocial str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2)*, 189-205.